

1950년대 전쟁기 경남·부산지역 동시 연구*

문 선 영**

차 례

- | | |
|--------------------------|-----------------------|
| I. 들머리 | III. 전쟁기 아동잡지와 동심의 초상 |
| II. 전쟁기 동시집과 희망의 원리 | IV. 전쟁기 신문과 동심 인용의 포화 |
| 1. 김상옥과 고향 또는 유년의 달콤한 악몽 | V. 마무리 |
| 2. 서덕출과 자아의 신화 살아내기 | |

I. 들머리

한국전쟁기 시문학의 양산에 비추어 볼 때 동시의 창작은 미진한 편이다. 전쟁기에 출간된 성인시집이 100권이 넘는 반면 동시집은 7여 권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은 아동잡지와 신문매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동심을 바탕으로 한 동시들이 지속적으로 창작된 사실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전쟁기 동시들은 어른성에 주목하기보다 그 자체로 이해 가능한 아이들의 세계에 대해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전쟁기 동시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2-AS1009)

** 부산대학교 강사

두루 알려진대로 동시의 세계는 명예와 규율, 대의명분이 가득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다. 판도라의 상자를 통해 전쟁기에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반정립이라든가 전복 본능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의 대화법’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대화법은 짐작하는대로 단순하고 소박하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법이 수많은 수사법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의 진실에 근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시의 얼굴은 아이의 상징과는 별도로 조금씩 더 구체적인 주름살과 상처로 리얼리티를 얻어 왔으며,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품들과 실패한 작품들 모두 동시 갈래의 정착 여부를 타진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시인들은 동심의 구조적 몸체는 유지하면서도 시간을 옹기고, 인물들을 변형하고, 동심의 의미 쓰임새를 바꾸면서, 동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희원하게 되는 삶의 일반화된 형태로 작품을 몰고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시는 “한 인간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매달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라 할 만하다. 아이는 시인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상징의 주체이다. 이때 아이는 영생적이며 영원하다. 전쟁기에 시인이 관심을 보인 아이는 전쟁이라는 절망의 바깥에 있는 영속의 존재였다. 그러므로 아이는 자연의 다른 말이다. 그렇다면 이 자연의 인간 상태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는가? 바로 이 지점이 전쟁기 동시를 대상으로 이 글에서 눈 여겨 살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글은 전쟁기 아동문학 매체 연구¹⁾에 이어 전쟁기 동시를 고찰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쟁기에 발간된 단행본 시집과 정기간행물, 그리고 신문매체에 발표된 경남·부산 작가들의 작품들이 대상이다. 전쟁기 동시는 시기적 특성과 아울러 그 문학적 의의와 가치의 발견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음에도 소홀히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²⁾ 오늘날 문학의 영역에서 전쟁기를 들추는 작업은 그

1) 문선영, 「1950년대 전쟁기 피난문단과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매체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7집(2004.8), 301-330쪽.

2) 제해만의 『韓國現代 童謠·童詩의 史的 考察-光復 以後 60年代까지』에서 전쟁기 동요와 동시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글은 사적 고찰인 관계로 한 단락으로 전쟁기의 상황만을 서술했을 뿐 전쟁기 동요와 동시에 대한 구체적인 살핌은 없다. 사계이재철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韓國現代兒童文學 作家作品論』(집문당, 1997), 1213-1214쪽.

의의를 충분히 헤아릴 만하다. 문학적 진실은 문학이 사람살이에 초점을 두는 한 유효하다는 명제로부터 그 의의는 출발할 것이다.

아이의 존재감에 더더욱 관심을 표명하는 동시는 전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시험하며 범주를 확장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동심이란 단어를 전세기는 동시란 갈래로 내용과 분량을 확장했다. 그러므로 동시는 동심의 일관성 쌍둥이 같은 작품의 탄생 과정의 연속인 셈이고 전세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II. 전세기 동시집과 희망의 원리

전세기에 발간된 7권의 시집³⁾ 가운데 경남·부산 작가의 동요·동시집은 두 권이다. 격변의 시대는 상상의 터를 제공한다. 거기에는 매몰된 진실이 있고, 밀려난 자의 울부짖음이 떠돌고, 살아남은 자의 두려움이 숨어 있다. 혹은 그러하다고 상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배태된 글들은 종종 이 가능성에서 시작한다. 김상옥의 『석류꽃』과 서덕출의 『봄편지』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1) 김상옥과 고향 또는 유년의 달콤한 악몽

광복기 시조시인으로 출발했던 초정이 전세기에 동시집을 낸 때는 헤아릴 몇 가지 의미망들이 내재해 있다. 이 글은 동시집 『석류꽃』을 대상으로 전세기 초정의 동시집의 의미와 의의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초정 김상옥은 두루 알려진대로 시조시인으로 이름이 드높다. 시조로써 그는 지정확적인 고향인 통영의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정서를 노래하고,⁴⁾ 아울러 우

3) 김영일, 『소년 기마대』(1951), 서덕출, 『봄편지』(자유민보사, 1951), 홍은순, 『戰時 노래 모음』(초등학교 음악교과서, 1951), 김상옥, 『석류꽃』(현대사, 1952), 김장수, 『과랑새』(삼성출판사, 1952), 이종택, 『새싹의 노래』(1952), 윤석중, 『노래 동산』(학문사, 1952) 등이 전세기에 간행된 동시집이다. 이 가운데 『소년 기마대』, 『봄편지』, 『戰時 노래 모음』, 『과랑새』, 『노래 동산』 등이 '동요집'으로 출간되었다.

리 민족의 정신적인 고향인 전통문화유산을 통한 전통정신으로서의 고향을 노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인으로서, 서예가로서 예술활동에 전념했으며, 교사, 인쇄공 직공이기도 했고, 서점과 도장포를 경영하기도 했으며, ‘亞字房’이라는 골동품 가게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다재다능한 초정은 전쟁기에 『석류꽃』이라는 의미심장한 동시집을 내놓는다. 그러나 초정의 동시 세계는 그의 다양한 재주에 가려져 그 고찰이 미루어져 왔다. 이 글은 이러한 그의 미진한 동시 세계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다.

초정의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1945년 아동문학지인 『참새』를 간행한 이력이 바로 그것이다. 통영 문인협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을 역임했고, 1960년대 서울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주로 경남지방에서 작품활동을 하였다.

동시집 『석류꽃』은 1952년 10월 5일 현대사에서 발간되었다. 제자(題字)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초정의 딸 김훈정(金薰情)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표지와 장정, 문비(門扉)는 이에 재주를 가진 초정이 맡았고, 삽화는 이석우가 그렸다.

초정의 동시집에 대한 의의는 동시집의 서문을 쓴 청마의 글에서 살필 수 있다.

한 족속의 가진바 그 발상(發祥)의 꿈과 그리고 전통과 풍토, 운명의 우울성(憂鬱性)까지를 가장 흐림 없이 승계하는 자는 그 족속 가운데서라도 어린이를 두고는 없을 것이며 그 천의무봉(天衣無縫)한 세계에 참내하려면 예술가 중에라도 시인, 시인 중에서 라도 자기 족속에의 애정과 이해를 남달리 가져서야만 가능할 것이다.

...(가운데 줄임)...

이미 시조에서 우리 겨레의 정서를 그의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우러난 독보(獨步)의 솜씨로서 발굴한 시인 초정(草汀)이 이 천의무봉의 나라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게 된 것은 실로 의당(宜當)한 일이며 무한한 기쁨이 아닐

4) 통영의 대표적 시인으로 초정은 손색이 없다. 통영 문학을 다룬 여러 글에서 이는 충분히 입증되는 사실이다. 통영을 통시적으로 다룬 박태일의 「근대 통영지역 시문학의 전통」(『통영 거제지역연구』,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1997. 12)과 이순욱의 「지역문학과 문학현장 - 통영·거제지역을 중심으로」(『국어교과교육연구』 제3호, 200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 없다.

…(가운데 줄임)…

이 아담한 동시집 『석류꽃』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서러운 이력서(履歷書)이며 가난한 우리 어린이들의 귀한 전기(傳記)임을 나는 오직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자랑하는 바이다.⁵⁾

이미 동시를 수십 편 발표한 청마가 초정의 동시집에 애정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시집 『석류꽃』은 청마의 서문을 시작으로 「송아지」, 「팥모초롱」, 「새알심」, 「햇빛과 아기」, 「꽃피는 들길」, 「노리개」, 「눈오는 아침」, 「校歌篇」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어 「꼬리말」과 「작품목록」이 붙여져 있다.

초정의 동시들은 고향 통영의 추억을 술회한 시편들, 그야말로 동심을 노래한 시편들, 그리고 역사적 고난기 속에서 생채기로 얼룩진 유년체험들로 유형화된다.

먼저, 고향 통영의 추억을 술회한 시편들이다. 이미 시조에서도 드러난 고향에 대한 사랑을 초정은 동시에서도 놓치지 않는다.

(1)

김보기가 겨우면/ 명정골 가요/ 빨래 한 통 다 씻었나/ 엄마 찾아서 —/
(6)

명정골은 동백꽃/ 빨간 동백꽃/ 바람도 없는데요/ 지고 맙니다//
사립문 닫아놓고/ 명정골 가요/ 침 바르고 갔다오께/ 있으했는데 —//
엄마 몰래 빨래터/ 넘어다 보고/ 동백꽃 줌고 놀며/ 기다립니다 — 「동백꽃」(32-33쪽)⁷⁾

‘명정골’은 통영 서문 밖 충무공 사당을 모신 마을이다. 사당 앞에 늘어선 고목에는 겨울에도 동백꽃이 빨갳게 핀다고 초정은 술회한다. 그리고 드높은 홍살문 아래에는 어떤 가문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솟고 있다고 덧붙인다.

초정의 역사의식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충무공

5) 김상옥, 『석류꽃』(현대사, 1952), 「서문」, 3-4쪽.

6) 동요의 리듬감을 보다 생생하게 살리기 위해 연 구분(//) 단위로 행간이를 하였다.

7) 『석류꽃』 이하 작품들은 쪽 수를 밝히는 것으로 대신한다.

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달라서 첫 시집 『草笛』 이후 향리로 돌아와 남망산에
충무공의 시비를 세운 일은 유명하다. 그리고 그 시비에 새긴 충무공 예찬은
통영을 소개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명문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위 작품 역시 어린 시절 충무공 사당을 모신 명정골을 중심으로 동백꽃과 어울
려져 놀던 유년의 체험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는 점에서 눈 여겨 읽을 만하다.

(2)

안개 낀 항구에/ 등불 하나/ 안개에 젖어서/ 멀리 보이네//
등불은 떡국집/ 유리 호얏불/ 뱃사람 혼자서/ 떡국을 먹네//
뚜우우 ……//

어디서 떠나가는/ 뱃고동 소리/ 안개에 잠겨서/ 멀리 들리네 - 『안개 낀
항구』(77쪽)

인용시도 『동백꽃』과 함께 유년시절 고향 통영을 구체화한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안개 낀 항구’ 통영은 마냥 행복한 공간만은 아니다. “안개 낀
항구에/ 등불 하나/ 안개에 젖어서/ 멀리 보이”는 풍경은 “떡국집/ 유리 호얏불
/ 뱃사람 혼자서/ 떡국을 먹”는 사람의 심사로 이어져 “뚜우우……” 뱃고동 소
리로 감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개 낀 항구’에 켜진 등불은 그 시절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안개에 젖어서/ 멀리 보”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다음으로, 그야말로 천의무봉의 세계인 동심의 세계를 노래한 동시편들이다.

(1)

아빠 아빠 베개/ ○○수복침 베개/ 엄마 엄마 베개/ ○○원앙침 베개//
누나 누나 베개/ ○○쌍왓자 베개/ 작은 누나 베개/ ○○모란꽃 베개//
우리 아기 베개/ ○○엄마 팔베개/ 젓꼭지 입에 닿는/ ○○엄마 팔베개

- 『베개』(39쪽)

화목한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다. 수복침 베개, 원앙침
베개, 쌍왓자 베개, 모란꽃 베개들 사이에 “우리 아기 베개”는 “엄마 팔베개”다.
이러한 베개들이 두 칸 들여쓰기로 되어 있는 것은 독자들에게 정답을 환기시
키는 역할을 한다. “젓꼭지 입에 닿는/ 엄마 팔베개”다. ‘베개’는 그야말로 평화
와 휴식의 상징이고 이러한 안정과 평화가 그야말로 제대로 전달되는 베개들

의 모습은 흐뭇하다.

(2)

알심 알심 알심/ 팔죽 속에 새알심//
 새알 같은 새알심/ 동지 팔죽에 새알심//
 동지 팔죽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고//
 새알심 하나 먹으면/ 새알 만큼 더 크다//
 새알 새알 새알/ 새알 같은 새알심 - 「새알심」(41쪽)

세 박자의 노래하듯 불러지는 「새알심」은 우리 고유의 동짓날 풍습 속에 흥겨운 아이들의 즐거움이 한껏 배어져 있다. 팔죽 속의 알심을 “새알 같은 새알심”으로 비유한 아이의 천진스러움도 함께 즐겁다.

(3)

깊은 산 숲속에 연두빛 열매/ 빈딿벌 보오얀 호박꽃 초롱/ —이건 말이 지/ ○○○농사지기 시골서 크는 아기/ ○○○엄마를 기다리는 노리개란다//
 바닷물에 돌아나는 새빨간 산호/ 조개 품에 잠자는 동그란 진주/ —이건 말이 지/ ○○○고기잡이 시골서 사는 아기/ ○○○아빠를 생각하는 노리개란다//
 시골에선 못 보던 세발 자전거/ 시골에선 못 들던 꼬마 손풍금/ —이건 말이 지/ ○○○먼지 깊은 서울서 노는 아기/ ○○○가져도 짜증나는 노리개란다 - 「노리개」(85쪽)

더러 보이는 대화체를 통해서 초정은 아이의 순수함은 문명이 아니라 자연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지론을 설파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와 어른의 대화는 다소 혼유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천진무구한 동심에 대한 그의 생각은 충분히 짐작된다. 이러한 효과는 앞의 인용시 「생알심」과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통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눈오는 아침」 편에 집약된, 역사적 고난기에 형상화된 동시편들이다.

아래 인용된 세 편은 “이미 지난날이 된 8.15 直後에 입은 마음의 생채기”에 대한 기록이다.

(1)

진달래 꽃피는/ 산골/ 어디서 울었다/ 버꾸기//
흰 구름 머흐는/ 산골/ 혼자서 흐른다/ 실개울//
아무도 못오는/ 산골/ 멀리서 울었다/ 솔바람 - 「산골」(89쪽)

(2)

해방된 그 다음날/ 문패를 떼고/ 우리 이름 옛이름/ 써서 붙였다//
앞집에도 새 문패/ 하얀 새 문패/ 뒷집에도 새 문패/ 같이 붙였다//
그리운 우리 이름/ 다시 부르자/ 정다운 옛이름도/ 귀에 설고나 - 「문패」

인용시 「산골」에는 “이 한 篇을 8.15 以後 처음 發表된 그의 遺作에서 만나
게된 詩人 故 尹東柱의 靈前에 삼가 焚香한다”라는 부기가 있다. 인용시 「문
패」에서 시인은 민족 해방을 맞은 기쁨을 아이의 눈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름
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다운 옛이름도/ 귀에 설”
지만, “그리운 우리 이름/ 다시 부르”는 기쁨은 온 나라의 가장 순수한 기쁨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3)

눈 오는 아침/ 대문 밖에서/ 서투른 말씨로/ 무얼 달라나//
일본서 혼자 나온/ 어린 소녀가/ 가랑눈 맞고 서서/ 무얼 달라나//
보자기에 무엔지/ 얼어 들고서/ 눈 속으로/ 머물리 사라지는데//
돌아선 어깨 뒤에/ 눈이 내린다/ 단발머리 뒤에도/ 눈이 내린다 - 「눈오
는 아침」

해방 직후 혼란상을 그린 작품이다. “무얼 달라나”가 의문형이 아닌 것은 눈
오는 아침 “일본서 혼자 나온/ 어린 소녀” 단발머리 뒤에 내리는 눈 때문이다.
아래 인용한 두 편은 시인의 마음 속에 아로새겨진 “6.25 動亂後 가슴에 찍힌
가실 수 없는 자욱”에 대한 기록이다.

(1)

누나! 잠시 일손을 멈추고/ 이걸 좀 봐요//
이렇게 활짝 핀 채송아 꽃은/ 이렇게 향기 짙은/ 채송아 꽃은/ 그날 그
아저씨 가슴에 찍혔던/ 선지피 상처기 같이 새빨강게 피어 났구먼//
—— 누나 어서 이리 좀 돌아봐요!//

누나! 들창을 열고 내다봐요/ 저걸 좀 내다봐요//
 저렇게 숨 같이 피어나는 구름을/ 저렇게 돛대 같이 흘러가는 구름을/ 그
 날 그 아저씨 몸에 두르셨던/ 새하얀 무명 옷자락 같이 하얗게 나무끼구먼
 // — 누나 어서 좀 뛰어와서 내다봐요! — 『꽃과 구름』

부제 “상이 군인 B에게”가 붙어 있다. 전쟁 중에 몸을 상한 상이군인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다. 향기롭게 활짝 핀 채송화는 “그날 그 아저씨 가슴에 찍혔던/ 선지피 상채기 같이 새빨갳게 피어” 나고, 숨 같이 돛대 같이 흘러가는 구름은 “그날 그 아저씨 몸에 두르셨던/ 새하얀 무명 옷자락 같이 하얗게 나무”졌다. 채송화와 구름, 피와 무명 옷자락 사이의 거리는 천진무구한 아이의 세계와 동족상잔의 비극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멀다.

(2)

사람도 드문 머나먼 길을/ 혼자 물어서 물어서 찾아오니/ 우리집은 그날
 사립문 닫힌채 그대로 있네//
 풀이죽은 어머니 행주치마도/ 저기 말없이 걸려 있고/ 우물가에 드레박도
 놓인 그냥 가만히 놓여있네//
 그러나 축담 섬돌 위엔/ 누나랑 아빠랑 또 우리 언니랑/ 쌍나라니 그 눈
 익은 신발들 보이지 않네//
 지금 뒷바람 숲 속엔/ 그전에 울던 산비둘기도 울어상고/ 머언 가을 하늘
 석류빛 놀도 곱게 타는데 …… — 『석류빛 노을』

피난으로 잠시 비운 집을 다시 찾아 돌아 온 심회로 읊은 고향집의 풍경이다. “사람도 드문 머나먼 길을/ 혼자 물어서 물어서 찾아” 온 집이다. “우리집은 그날 사립문 닫힌채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가족이 부재한 황망한 집이다. “축담 섬돌 위엔/ 누나랑 아빠랑 또 우리 언니랑/ 쌍나라니 그 눈익은 신발들 보이지 않”는 집이다. “지금 뒷바람 숲 속엔/ 그전에 울던 산비둘기도 울어상고 / 머언 가을 하늘 석류빛 놀도 곱게 타”는 여전한 가을 황혼 무렵이지만, 전쟁은 더 이상 가족간의 안락한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 잔인한 참상의 흔적을 남긴 셈이다.

이상으로 『석류꽃』을 중심으로 전쟁기 김상옥의 동시 세계를 살펴 보았다. 『석류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플래시백이고, 그것들이 작품 전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년 시절의 회상 또는 복원이 플래시백에 기대고

있는 만큼, 플래시백은 김상옥의 시적 출구이자, 무의식에 가까워 보인다. 그래서 『석류꽃』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기능적이거나 상징적인 자리에 더 가까이 있다.

『석류꽃』은 신중하게 만들어진 시집이다. 전쟁기 속 아이들의 생활을 드러내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배려했고, 동시라는 장르 안에서도 초정 자기만의 방식을 찾기 위한 고민이 있다. 무엇보다 아이인 체 하는 어른의 목소리가 아니기 위한 필사적인 진지함도 좋다.

전쟁기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킨 것은 삶의 건강성, 나아가 문학의 건강성을 잊지 않은 데서 비롯된 소중한 문학적 자산이다. 인간과 사회, 나아가 우주 전체 만물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과 원초적 심성으로 숭고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는 것이 동심이고, 이러한 동심은 아동문학의 근간이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정의 동시집 『석류꽃』은 아주 각별하게 읽힌다.

2) 서덕출과 자아의 신화 살아내기

『봄편지』는 사연 깊은 시집이다. 서덕출이 작고한 지 9년 만에 그의 아우 서수인이 엮고, 이저런 사정으로 3년을 더 묵혀 그가 작고한 지 12년만인 1952년에야 비로소 발간된 사연 많은 시집이다. 시인은 6살 때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평생 일어설 수 없는 불구의 몸으로 살았고, 이러한 그의 회한은 『어린이』지에 동시를 간간히 발표하면서 분출되었다. 『봄편지』는 1952년 7월 10일 자유문화사에서 발행하고 자유민보사에서 인쇄하였다. 전쟁기에 간행된 시집이기는 하나, 실제 창작은 대부분 나라잃은시기에 이루어졌다.

언뜻 보면 『봄편지』는 밝고 건강한 동시집이다. 으레 동시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동시집이다. 그의 삶의 내력을 모르고 보면 세상 근심 없이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여느 사람의 고백집 같다. 그러나 『봄편지』의 발랄함은 그의 이상적 자아에 대한 강렬한 회한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6살 이후로 밖의 세상과는 거리를 둔, 방‘안’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그를 자유롭고 순수한 유년의 세계로 이끌었을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방‘안’에만 있는 서덕출에게 그의 어머니가 글을 가르쳤고 이후 글쓰기에 열렬하게 몰두했다는 서수인의 증언에 기대어 보면,⁸⁾ 『봄편지』는 고집스러울만치 동심을 화두로 삼

은, 자유롭고 숭고한 삶을 꿈꾸는 한 인간의 미래형 일기라 봐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시집 뒤에 부기되어 있는 색동회 편지는 그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회를 엿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는 우리의 동요 운동을 더 깊이하기 위하여 더많은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 10일에 처음 동요회를 열었습니다. 보통 독창회나 음악회와 달리 동요를 한 가지 한 가지 독창하여 소개하고 그럴 때 마다 지은이를 소개하는 중 당신의 『봄편지』의 독창(김 영복양)이 있는 후 회원 중 방 정환씨가 당신의 생활을 소개하고 당신의 편지까지 낭독하였었더니 부인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이가 많았고 남자석 중 한분이 나와 「그렇듯 좋은 동요를 지어 내인 귀한 시인이 그렇듯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그냥 돌아 가서는 도저히 참이 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경애할 천재 시인이요 동요 작가의 한없이 쓸쓸한 마음을 위안하고 그렇듯 좋은 동요를 낳아 준 것을 감사하는 한 편 그의 앞날 시작 생활을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자리의 간절한 정을 표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십시다」고

말함에 모든 사람이 일체로 찬성을 하여 그 자리에서 금 3원 21전이 모였습니다.

그리 하여 그 돈으로 만년필 한 개를 사서 보내일 일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⁹⁾

1927년 10월 16일에 “동요회에 왔던 이들을 대신하여 색동회 일동”이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당대 문인들에게 서덕출은 “좋은 동요”를 짓는 “귀한 시인”이자 “천재 시인”이었다. 만년필로써 시적 감동에 갇히는 색동회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것은 그의 불우한 상황을 넘어 『봄편지』의 따뜻한 시적 세계관에 닿았기 때문이다.

『봄편지』는 동요집이다. 동요는 노래로 불려지는 것을 전제한 노랫말이다.

8) “불구의 설움으로 쓸쓸히 지내면서 남과 같이 높은 하늘과 넓은 들을 마음대로 쳐다 보지도 뛰어 보지도 못하고 다른 동무들과 같이 학교에도 가지도 못하고 평생 방 구석에서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여 불우한 아들에게 어머님께서 한글을 가르쳐 드리게 되어 거기에 낙을 붙여 그의 쓸쓸한 마음을 글로써 나타내는 동요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자의 걸어 온 길」, 『봄편지』, 59쪽.

9) 『색동회 편지』, 『봄편지』(자유문화사, 1952), 57-58쪽.

시가 노래로부터 출발한다는 원론적 사실을 새삼 환기하는 동요는 1920년대 이후 제2의 전성기라 할 만큼 전쟁기에 다수 창작된다.¹⁰⁾

동요집 『봄편지』에 윤석중이 「머리 말 대신」으로 1927년 8월 9일과 8월 10일자 일기를 넣었고, 서덕출 아우 서수인이 「봄 편지를 엮으면서」 글을 썼다. 「우리 애기 은방울」, 「물 길는 처녀」, 「눈은 눈은」, 「밤 시계」의 4부로 이루어져 있고, 33편의 시들이 실려 있다.¹¹⁾ 이어 「색동회 편지」와 「작자의 걸어 온 길」이 덧붙여져 있다. 전체 동요집을 4부로 나눈 뚜렷한 기준은 없어 보인다. 수록된 시편들 가운데 제목을 뽑아 표제로 삼았다.

『봄편지』는 사계절 고향 풍경 속 아이들의 모습이 대부분이고, 이외 쓸쓸한 심사를 투사시킨 작품들도 간간이 눈에 띈다.

(1)

언뜻 가에 새로 편/ 버들 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
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대한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
옵니다 - 「봄편지」(38쪽)

서덕출의 대표작으로서 윤극영이 곡을 붙여 여전히 널리 불려지고 있는 동요이다. “푸른 편지”인 「봄편지」의 세계는 모든 것이 지독하게 푸르다. 너무 푸르려서 ‘봄편지’를 받아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아무도 아무것도 소멸될 것 같지 않다. “대한 봄이 그리워/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마음이 ‘봄편지’에 담긴 마음이다.

(2)

버들 피리 봄인 듯이/ 소리가 고아/ 진달래꽃 땃실땃실/ 웃고 껴니다//
버들 피리 봄 저녁에/ 불어 날리며/ 별님이 너도 나도/ 내다 봅니다 - 「
버들피리」

10) 이러한 사실은 이후 살필 정기간행물이나 신문매체에 발표된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서덕출의 아우 서수인이 쓴 글 「봄 편지를 엮으면서」에는 “형님이 남긴 노래 문치 70 편 가운데서 35 편을 골라 이 조그마한 노래 책을 꾸며 보았”다고 했는데, 실제 시집 간행시에는 두 편이 빠진 33편이 수록되었다. 『봄편지』, 6-7쪽.

서덕출 동시의 계절적 배경은 대부분 봄이다. 위에서 살핀 「봄편지」와 「버들 피리」 이외 「들로 나가자」(“봄날이다 순회야/ 들로 나가자”), 「새봄」(“산 넘고/ 물 건너/ 새 봄이 와요”), 「봄맞이」(“우리우리 동무들아/ 봄 맞이 가자”), 「새봄」(“잠 자는 나무에/ 새 싹을 달아/ 웃음을 웃기며/ 새 봄이 온다”), 「봉선화」 등이 봄을 배경으로 한 동시들이다. 순환론적 관점에서 볼 때 봄은 그야말로 삶의 시작이자 희망의 원천이다. 서덕출 시인에게 봄은 이렇듯 동시를 가능하게 한 에너지기인 셈이다.

봄 이외에도 갖가지 계절은 시인에게 동심을 형상화하는 가장 아름다운 배경이다.

(3)

올해도 한여름/ 깊어 가는데/ 먼 산에 뽕꼭새/ 슬피 읊니다//
새 동무 날마다/ 찾아 와서도/ 엄마 새 생각나/ 슬피 읊니다 - 「뽕꼭새」

인용한 시는 여름이 시적 배경이다. “일곱 일곱 두 일곱/ 칠월 칠석밤”을 노래한 「칠석밤」도 마찬가지이다.

(4)

구 시월 단풍아/ 훨훨 날아라/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강 가로 산으로/ 훨훨 날아라//
구 시월 단풍아/ 훨훨 날아라/ 원없이 한없이/ 목 놓아 울며/ 강 가로 산으로/ 헤매어 오라//
구 시월 단풍아/ 훨훨 날아라/ 그러면 네 어미/ 내년 봄 오면/ 새 잎을 피어서/ 반겨한단다 - 「단풍」

가을이 조락의 계절이만큼 시인도 죽음의 문턱에서 가을을 형상화하고 있다. “병 들어 노”란 가을잎 “장례가 떠나”가는 가을에(「눈 뜨는 가을」) 시인은 “훨훨 날아” 가는 단풍을 통하여 새로운 영생을 꿈꾼다.

(5)

송이송이 눈꽃 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피어 오는/ 하얀 꽃송이/ 나무에나 뜰 위에나/ 동구 밖에나/ 골고루 나무끼니/ 보기도 좋네//
송이송이 눈꽃 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피어 오는/ 하얀 꽃송이/ 크

고 작은 오막집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누끼니/ 보기도 좋네 - 「눈꽃
송이」(42쪽)

오히려 겨울은 시인에게 흥겹다. 가을에 이미 장례를 치른 덕분일까. 새봄이 가까운 겨울은 눈을 테제로 하여 발랄하고 즐겁다. 이상의 인용시들에서 주목 되는 것은 아이의 대화법이다.

아이의 대화법은 자신이 만들어낸 낙원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꿈을 꾸는 경지, 곧 데이 드리머가 되어야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의 대화법에 주목하여 창작하는 시인들이 드림 저널에 어른인 자신의 꿈을 정리하는 것을 시적 의도로 삼는 것도 이러한 아이의 대화법의 특성 때문이다. 어른들이 동시를 창작하는 일은 동심의 세계를 엿보는 기회만은 아니다. 아울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일깨워주려는 부모로서의 입장이 스며들어 있는 의도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시는 어린이의 발상에 의해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들에 의한 작품들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시는 어느 시기건 유효성을 갖는 매우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갈래임에 틀림없다.

사계절 고향 풍경 속 아이들의 모습 이외에 시인의 존재론적 심사를 투사시킨 작품들은 앞의 천진하고 발랄한 동시에 비해 다소 쓸쓸하고 서럽다.

(6)

비가 오네 비가 오네/ 하늘에서 비가 오네//
아침 비는 해님 눈물/ 저녁 비는 달님 눈물 - 「비」

비가 눈물의 비유인 것은 「꽃은 비」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눈물이 울음과 슬픔의 상징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들의 마음발인 동시에 서러움을 투사시킨 시인의 심사가 헤아려진다. 이러한 울음은 「뺨꼭새」, 「피리」, 「꿈지 빠진 새」들에서도 살필 수 있다.

폐소공포증은 서러움을 투사시킨 시편들을 분석하는 하나의 틀로 적용 가능하다.¹²⁾ 자신의 의사로 그 자리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일이 부자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증세가 폐소공포증이다. 불구의 몸으로 방'안'이 주된 일상의 공

간이 되고, 그래서 그의 일상적 공간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¹³⁾ 방‘안’의 질서에 순응하지만,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희원하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방‘안’은 폐쇄된 공간이고,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시인은 끊임없이 폐소공포증에 시달리고, 이러한 그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는 자유로움을 꿈꾸는 욕망뿐이다. 이때 시인의 경우 자유로움은 동시 창작을 통하여 성취된다. 그러므로 동시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방‘밖’의 세계는 자유롭고 천진한 시인이 희원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무엇으로도 한정될 수 없는 시인의 영감의 세계이기도 하다. 삶의 희망인 반역자를 바라며 아직도 살아 있음을 확인하려는 의지가 동시의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상으로 서덕출의 『봄편지』를 대상으로 그의 동시 세계를 살펴 보았다. 『봄편지』는 한 마디로 하루하루 자아의 신화를 살아내는 데 바쳐진 시집이다. 만물의 정기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 만나게 되는 언어의 모음집이다. 이때 시인은 자신 속에 건재하는 신을 찾아가는 영혼의 연금술사가 된다.

영혼의 연금술사로서 서덕출이 보여 준 것은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다. 그러기 위해서 배신이나 권태의 얼룩은 용납할 수 없다. 또 유일하고 영원해야만 한다. 여기서 시인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이 눈길을 끈다. 극진한 사랑, 곧 순애의 까다로운 조건을 성취하는

12) 라틴어 claustum은 좁은 곳 또는 밀폐된 곳을 의미하고 그리스어 phobos는 공포증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합친 개념이다. 즉 좁은 엘리베이터, 좁은 방 등에 들어가면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수도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도피하려는 현상이 생긴다.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심기(心氣)가 항진하며 때로는 공황(panic)에 빠지기도 한다. 이것은, DSM III에서는 불안장애증(anxiety disorder) 중에서 공포장애증(phobic disorder)의 한 범주에 속한다. 공포증 치료의 선구자인 레빈슨 박사에 의하면 그 누구라도 환경이 충분히 제한되면 폐소공포증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스티븐 카터 & 줄리아 스콜, 『사랑을 못하는 남자』(승영조 옮김, 돌출새김, 2005) 참조.

13) 그렇다면 방‘안’에 갇혀 생활해야만 하는 시인은 아마도 그리스 신화의 에우로페가 아닐까 싶다. 제우스의 꼬임에 빠져 크레타 섬으로 납치되어 유럽을 건설하는 세 왕의 어머니가 되었던 에우로페는 또한 폐소공포증이 의인화된 인물이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크레타 섬에 갇혀서 탈출도 하지 못한 채 신의 아내이자 인간의 어머니가 되었던 인물, 갇혀 사는 존재가 에우로페이자 서덕출이다.

손쉬운 방법은 사랑을 동결 건조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랑의 당사자 중 한 쪽이 생생하고 아름다운 시체를 남기고 죽어야 한다. 단, 죽은 자는 살아남은 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와야 한다. 서덕출 시인은 척박한 세상에 살아남은 자이고, 『봄편지』에 등장하는 숭고한 영혼인 아이는 서덕출의 현실적 삶과는 거리가 먼, 굳이 말하면 죽은 자이다. 아이, 현실의 고뇌나 갈등과 거리가 먼 이는 대부분 언제나 아름답고 절절해 보인다.

『봄편지』에서 그가 보이는 아이에 대한 순애보적 사랑은 자연의 질서만큼 확고부동하고 위대한 섭리이다. 그래서 순애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날씨와 계절과 풍경은 결정적이다. 눈과 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등은 항상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웃고 흐느낀다. 서덕출의 『봄편지』가 아이에게 보내는 순애보의 절창은 모두 이러한 공식 속에서 형상화된다. 물론 비극적 인물의 시적 승화라는 뻔한 평가를 이끌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 스스로의 불구적 상황이 사회 역사적 상황을 살필 여유도 빼앗아버린 슬픈 영혼의 기록으로서 『봄편지』는 그러므로 다분히 이중적이다.

시인은 아이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면모에 집착한다. 『봄편지』에서 시인의 아이에 대한 끔찍한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치고 희생하는 극진한 사랑이다. 이 때문에 『봄편지』는 빛난다.

이상으로 전쟁기에 간행된 동시집 『석류꽃』과 『봄편지』를 대상으로 전쟁기 동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쟁기에 간행된 동시집은 확인된 바 7권이였다. 경남·부산지역 작가의 시집인 『석류꽃』과 『봄편지』는 그 외 5권과 큰 변별력은 보이지 않았다. 단, 김영일의 『소년 기마대』(1951)는 전시라는 상황을 고려한 현실참여적인 내용이 위주였고 그 외 나머지 6권은 전쟁기라는 시련기에 발간된 만큼 동심으로써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바쳐져 있었다.

Ⅲ. 전쟁기 아동잡지와 동심의 초상

1950년대 전쟁기 피난지에서 발간된 잡지로는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 『과랑새』를 비롯하여 『꽃수레』, 『중학시대』 등이 있다.¹⁴⁾ 이들 전쟁기 아

동잡지에 발표된 작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전쟁기 아동잡지 수록 동요·동시 ; 경남·부산 작가군>

- 김상옥, 달밤(『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7호, 1953년 7월호, 다이제스트社) ⇨ 노래와 감상
- 김상옥, 아침(『中學時代』창간호, 1952년 12월호, 문예특집호, 부산:중학시대사, 11쪽)
- 김용호, 가을의 인사(『과랑새』, 제1권 제2호, 1952년 10월호, 부산:협동문화사, 61쪽)
- 김용호, 달밤(『中學時代』창간호, 1952년 12월호, 문예특집호, 부산:중학시대사, 4쪽)
- 김원룡, 꿈에만 보는 서울(『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11호, 1953년 11월호, 다이제스트社) ⇨ 노래
- 김원룡, 五月이 오면(『소년세계』제11호, 1953년 5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2쪽)
- 김원룡, 자라는 우리(『소년세계』제8호, 1953년 2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28쪽)
- 김원룡, 가을(『소년세계』제4호, 1952년 10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29쪽)
- 서정봉, 설달 그림(『과랑새』제1권 제4호, 1952년 12월호, 부산:협동문화사, 17쪽) ⇨ 동요
- 설창수, 빨기 노래수(『소년세계』제11호, 1953년 5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7쪽)
- 설창수, 오솔 길(『소년세계』제4호, 1952년 10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6쪽)
- 손동인, 벌신 전봇대(『과랑새』제2권 제2호, 1953년 2월호, 부산:협동문화사, 27쪽) ⇨ 동요
- 유치환, 기선(『과랑새』제2권 제2호, 1953년 2월호, 부산:협동문화사, 36쪽)
- 유치환, 대장간(『中學時代』창간호, 1952년 12월호, 문예특집호, 부산:중학시대사, 8쪽)
- 이민영, 이른 새벽(『과랑새』제1권 제4호, 1952년 12월호, 부산:협동문화사, 78쪽)
- 이원수, 소쩍새(『소년세계』제12호, 1953년 6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7쪽)
- 이원수, 아름다운 마음(『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2호, 1953년 2월호,

14) 정기간행물인 잡지를 중심으로 한 전쟁기 아동매체 연구는 문선영, 앞의 글 '1950년대 전세기 피난문단과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매체 연구' 참조.

다이제스트社)

- 이원수, 여울(『소년세계』제5호, 1952년 11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5쪽)
- 이형기, 버들피리(『소년세계』제10호, 1953년 4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7쪽) ⇨사월시집
- 이형기, 홀러간 별(『소년세계』제4호, 1952년 10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6쪽)
- 정영태, 눈오는 날(『파랑새』제2권 제1호, 1953년 1월호, 부산:협동문화사, 17쪽) ⇨동요
- 최계락, 꽃댕기(『소년세계』제10호, 1953년 4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7쪽) ⇨사월시집
- 최계락, 산에서(『소년세계』창간호, 1952년 7월 1일 발행,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48쪽)
- 최계락, 하늘과 구름과 바다(『새벗』 1952년 7월호, 부산: 새벗사)
- 최계락, 시골 가게(『소년세계』제13호, 1953년 7월호, 창간 1주년 기념특별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25쪽)

<전쟁기 아동잡지 수록 동요·동시 ; 비 경남부산 작가군>

- 강소천, 병아리 학교(『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3호, 1953년 3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고 원, 누나의 섬, 고원(『파랑새』, 제1권 제1호, 1952년 9월호, 부산:협동문화사, 9쪽)
- 김리석, 기차(『어린이 다이제스트』제1권 제4호, 1952년 12월호, 다이제스트社) ⇨창작 동요
- 김영일, 설날(『파랑새』제2권 제1호, 1953년 1월호, 부산:협동문화사, 52쪽) ⇨동요
- 김영일, 조용한 오후, (『파랑새』제1권 제3호, 1952년 11월호, 부산:협동문화사, 71쪽)
- 김장수, 그리움(『파랑새』제1권 제4호, 1952년 12월호, 부산:협동문화사, 39쪽)
- 나동호, 서울 가는 길(『소년』, 23호, 1950년 6월, 서울:문화당, 22쪽)
- 남준우(용인남사초등학교 5-1), 흰 구름(『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6호, 1953년 6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노천명, 六月(『소년세계』제12호, 1953년 6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6쪽)
- 박경중, 거울 장수 할아버지(『어린이 다이제스트』창간호·제1권 제1호, 1952년 9월호, 부산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노래 이야기

- 박경중, 꽃집(『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2호, 1953년 2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박경중, 눈(『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12호, 1953년 12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
- 박경중, 돌아가는 길(『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2호, 1952년 10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박경중, 박과 호박(『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10호, 1953년 10월호, 다이제스트社) ⇨동요
- 박귀송, 풍경화(『中學時代』창간호, 1952년 12월호, 문예특집호, 부산:중학시대사, 12쪽)
- 박남수, 콩청대(『中學時代』창간호, 1952년 12월호, 문예특집호, 부산:중학시대사, 5쪽)
- 박두진, 장날(『새벗』 1952년 7월호, 부산: 새벗사)
- 박두진, 낚시질(『소년세계』제2호, 1952년 8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7쪽)
- 박두진, 눈과 별과(『소년세계』제6호, 1952년 12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8쪽)
- 박두진, 소낙비가 개었다(『소년세계』제13호, 1953년 7월호, 창간 1주년 기념특별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21쪽)
- 박목월, 나무잎(『소년세계』제11호, 1953년 5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6쪽)
- 박목월, 때때웃을 갈아 입으려는 마악 그때에(『소년세계』제7호, 1953년 신년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3쪽)
- 박목월, 조개껍질과 무지개와 꽃수실(『소년세계』제2호, 1952년 8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6쪽)
- 박영준, 공중에서 본 바다(『소년세계』제2호, 1952년 8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5쪽)
- 박은중, 겨울밤(『소년세계』제8호, 1953년 2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23쪽)
- 박은중, 언덕(『소년』, 23호, 1950년 6월, 서울:문화당, 19쪽),
- 박화목, 첫눈(『中學時代』창간호, 1952년 12월호, 문예특집호, 부산:중학시대사, 6쪽)
- 박훈산, 흐르는 별빛 되어(『소년세계』제8호, 1953년 2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8쪽)
- 백 양, 5월의 푸른 들로(『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5호, 1953년 5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백 양, 가을 산(『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9호, 1953년 9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백 양, 고향집(『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6호, 1953년 6월호, 다이제스트

- 트社) ⇨노래와 감상
- 백 양,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래(『어린이 다이제스트』창간호·제1권 제1호, 1952년 9월호, 부산 다이제스트社) ⇨동요
- 백 양, 매미 소리(『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7호, 1953년 7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백 양, 메리 크리스마스(『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12호, 1953년 12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
- 손복원, 아기와 실타 할아버지, 손복원(『어린이 다이제스트』제1권 제4호, 1952년 12월호, 다이제스트社) ⇨창작 동요
- 손승교, 물결(『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8호, 1953년 8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신동집, 바다(『소년세계』제2호, 1952년 8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7쪽)
- 어효선, 꽃밭에서(『소년세계』제3호, 1952년 9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21쪽)
- 어효선, 이른 봄(『소년세계』제9호, 1953년 3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8쪽)
- 원용목, 오디가 익을 철이면(『소년세계』제13호, 1953년 7월호, 창간 1주년 기념특별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62쪽)
- 윤동주, 버선본(『파랑새』제1권 제3호, 1952년 11월호, 부산:협동문화사, 40쪽)
- 윤석중, 아침(『소년세계』제6호, 1952년 12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8쪽)
- 윤석중, 어린이 행진곡(『소년세계』제3호, 1952년 9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1쪽) ⇨동요
- 윤석중, 키대보기(어린이잡지 『꽃수레』 첫권, 1952년 3월호, 대륙출판사, 14쪽) ⇨동요
- 이덕수, 떠나보고야(『소년세계』창간호, 1952년 7월 1일 발행,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3쪽)
- 이상노, 피꼬리(『소년세계』창간호, 1952년 7월 1일 발행,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1쪽)
- 이상노, 참새떼(『소년세계』제4호, 1952년 10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7쪽)
- 이영애, 백설공주(『소년세계』제10호, 1953년 4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2쪽) ⇨동화시
- 이정국(서울삼광초등학교 부산분교), 내 가방(『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5호, 1953년 5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이종기, 들길(『소년세계』제5호, 1952년 11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23쪽)

- 이종기, 호들기 불면(『소년세계』제10호, 1953년 4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6쪽) ⇨사월시집
- 이종택, 사과장수(『소년세계』제10호, 1953년 4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34쪽)
- 이형기, 홀러간 별(『소년세계』제4호, 1952년 10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6쪽)
- 임인수, 가을밤(『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2호, 1952년 10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임인수, 구름(『소년세계』제12호, 1953년 6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22쪽)
- 임인수, 그리운 밤마다(『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1호, 1953년 1월호, 다이제스트社) ⇨동시 이야기
- 임인수, 첫눈 오는 밤(『中學時代』창간호, 1952년 12월호, 문예특집호, 부산:중학시대사, 7쪽)
- 장만영, 귀뚜라미(『파랑새』, 제1권 제2호, 1952년 10월호, 부산:협동문화사, 24쪽)
- 장만영, 그림자(『소년세계』창간호, 1952년 7월 1일 발행,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8쪽)
- 장수철, 동백꽃(『소년세계』제6호, 1952년 12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9쪽)
- 장수철, 들국화(『中學時代』창간호, 1952년 12월호, 문예특집호, 부산:중학시대사, 10쪽)
- 정소라, 꼬꼬꼬(『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7호, 1953년 7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와 감상
- 조지훈, 삼월의 노래(『소년세계』제9호, 1953년 3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5쪽)
- 차학성, 별을 쳐다보며(『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12호, 1953년 12월호, 다이제스트社) ⇨노래
- 한정동, 반딧불, 한정동(『파랑새』, 제1권 제1호, 1952년 9월호, 부산:협동문화사, 78쪽)
- 한정동, 수양버들(『소년세계』제10호, 1953년 4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16쪽) ⇨사월시집

전쟁기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가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품이 있다면 그건 동심의 세계였다. 수많은 시인들이 전쟁기에 동요나 동시에 발을 들인 이 유도 여기에 있다. 걸핏과 치기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단권력 밖에서, 한국문학의 지적 전통 안에서 있지도 않은 동요 또는 동시는 분명 정제하고 있는 한국문학에서 빠죽 솟은 갈래임에 틀림없다. 본능처럼 생존에 주력하

지만, 오직 동심에게만은 순진하게 굴었던 시인의 모습을 병렬 배치한 것이 아동잡지의 동요나 동시이다.

『소년세계』는 이원수 주재로 1952년 7월 피난지 대구에서 발간된, 아동의 성정을 옹호하는 순문예지적 성격이 강한 종합 아동잡지였고, 『어린이 다이제스트』는 강소천의 주간으로 1952년 부산에서 발간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피난지역 이외 외부 문인들이 필진으로 참가한 종합 아동지였으며, 『파랑새』는 김용호의 주간으로 1952년 9월 부산에서 발간된, 교화성과 시사성을 바탕으로 삼아 교육적 의도 아래 간행된 종합 아동지였다. 이 모두 전쟁기 지역문화적 대응방식을 표방한 아동문학 매체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은 아동문학사적 의의로 매김되어야 한다. 그리고 손동인이 엮은 『꽃수레』와 김영일이 편집책임을 맡은 『중학시대』도 전쟁기 아동문학을 활성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중학시대』에서 ‘중학시대문단’ 대회를 개최하였다. 수상자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투고 자격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1952년 12월 창간호에 실린 내용이다.¹⁵⁾

외로운 밤에/ 달님 하나/ 나 하나/ 그리고 또 그림자 하나/ 외로운 밤에
-『외로운 밤에』(54쪽)

남일국민교 김광남이 지은 것으로, 특선으로 뽑힌 작품이다. “이 동시를 뽑고 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어느 한군데 빈틈없는 완전시입니다. 짧은 시에서 이만큼 세련된 표현과 기교에는 시인도 능히 따라갈수 없는 걸작입니다. 외로움을 이렇게 짧은 글로 완전히 나타냈다는 것은 시인의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날을 기대합니다”라는 김영일의 선포도 찾을 수 있다. 일반 아동들에게 동시나 동요 짓기를 권장한 것은 시교육을 통한 동심의 참뜻을 새기자는 교육적 효과를 의도한 일이다. 나아가 동요나 동시의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민족문화 나아가 생활문화로 승화시키자는 의도였다. 동요의 경우를 보면, 동요가 비단 아이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표방이기도 했던 것이다.

15) 『中學時代』 창간호(중학시대사, 1952.12.1), 54-58쪽.

잡지는 신문과는 달리 매체적 성격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전쟁기 아동잡지의 경우 동요나 동시의 측면에서 매체적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대부분 자연과 동심을 일치시키거나, 가족간의 사랑을 노래하거나, 사물을 의인화시킴으로써 순진무구한 동심을 표출하거나, 앞날에 대한 희망찬 결의를 다짐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아동잡지의 성향에서 동심의 초상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롭다.

내일이란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관련된 미지의 시간으로 다가온다면, 전쟁이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불투명한 지점에 선 사람들에게 같은 단어의 용법은 그 반대일 것이다. 오히려 그 경계가 불투명한 데서 두려움이 확대될 수도 있다. 동족상잔이라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떼는 발걸음이란 어떻게든 죽음을 견뎌내고 초월해 보고자 하는 하루하루 동안의 간절한 몸부림이다. 여기서 시인은 불멸의 상징으로 시어를 찾아 거리를 헤맨다. 그는 삶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찾아서 과거의 하루로 여행한다. 이때 유년기는 행복한 과거 하루의 상징이고, 많은 시인들이 전쟁기에 동시나 동요에 몰두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곧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정지된 시간과 물리적으로 나아가는 흐르는 시간 사이를 상상과 의식을 동력 삼아 왕복하는 여정이 동요과 동시인 셈이다. 아동잡지가 신문이나 단행본보다 동심의 초상에 더 주목하는 것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잡지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IV. 전쟁기 신문과 동심 인용의 포화

전쟁기 신문은 무엇보다 합의 기능이 우세했다.¹⁶⁾ 합의 기능이란, 사설이나 논설·해설기사들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를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선택이 필요할 경우에 결정이나 여론을 조성한다. 때로는 의

16) 매스컴의 3대 기능으로 환경감시 기능, 합의 기능, 사회화 기능을 꼽을 수 있고, 이에다 오락 기능을 추가시키기도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겸 커뮤니케이션학자 Harold Lasswell과 Charls Wright가 이러한 이론 정립에 기여했다.

도된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므로 설득적 기능 또는 지도 기능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의 합의 기능 또한 때때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신문이 정론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론으로 빠져 들어갈 경우에 그렇게 되기 쉽다. 전쟁기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 신문은 대중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수렴하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대중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아 가는 임무에 충실했다. 피난지 부산에서 『부산일보』와 『국제신보』, 『민주신보』가 2면 정도로 발행되고 있었고, 1952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임시수도 부산에서 일시적으로 발행되었다. 물론 사회의 접합체로서, 사회의 거울로서 신문은 전쟁기에도 그 사회적 기능은 변함 없었다.

동요는 이른바 ‘어린이신문’에 실리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신문은 “공부거리와 놀이감의 화수분” “아희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신문”을 표방하며 15일마다 발간된 『붉은 저고리』(1913.1.1~1913.6.1)이다.¹⁷⁾ 당시 삼천 부를 찍었다¹⁸⁾는 사실만 보더라도 아동용 간행물에 대한 당대의 반응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20년대 『어린이』 『신소년』 『반도소년』 『신진소년』 『아동낙원』 『소년조선』 『조선아동신보』 등 아동만을 위한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무렵에 『붉은 저고리』가 놓여 있었으며, 이러한 문체적 위치로 인해 『붉은 저고리』는 아동문학이 예술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 근대적 인쇄 매체 공간 속에서 아동을 위한 서사와 시가가 조합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생성의 장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초의 신문으로 꼽힌 『어린이』가 있다. 1923년 방정환이 발간했다. 월간 잡지 형태였지만, 타블로이드형 4면으로 신문과 같은 형이다. 내용면으로 신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나라잃은시기 일반신문도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 때 어린이신문이 뉴스를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1937년 조선일보사에서 일요일 부록으로 『소년조선일보』를 발간했다. 주로 시사해설, 학습지도, 문예, 오락, 어린이 참여 발표 등을 실어 신문다운 성격을 띠어 일반의 환영을 받았다. 당시 『소년조선일보』의 역할은 위축되어 가는 우

17) 조은숙, 「1910년 아동 신문 『붉은 저고리』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8호 (2003.10), 101-135쪽 참조.

18) 최남선, 「한국문단의 초창기를 말함」, 『현대문학』 1955년 1월호.

리말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잊혀져 가는 국어를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접하게 한 데 큰 의의가 있다.

해방 이후 고려문화사에서 1945년 10월 창간한 『어린이신문』이 있다. 형서로 기록한 이 신문은 타블로이드형 4면으로 한때 15만부의 발행부수를 내기도 했다. 1946년 3월, 을유문화사에서 『주간 소학생』을 발간하여 『어린이신문』과 대항하는 고무적인 일도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양신문사가 부록으로 『소년태양』¹⁹⁾을 내었는데, 당시 굉장한 독자의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수복 이후에도 1953년까지 계속되었으나 모지인 『태양신문』이 『한국일보』로 바뀌면서 사라지고 말았다.²⁰⁾

전쟁기 피난지에서서 주요 신문 역할을 했던 『부산일보』와 『국제신보』에 동시·동요가 다수 실려 있다. 지역신문이기는 하지만 전쟁기라는 특수상황 아래 전국적 신문 역할을 하였기에 다양한 문인들의 글을 살필 수 있다. 두 신문에 실린 동시·동요가 연구 대상이다.

한국전쟁기와 부산의 임시수도 시절에는 부산의 일간지였던 『부산일보』, 『국제신보』, 『민주신보』, 『자유민보』가 중앙지의 역할을 했다. 곧, 『부산일보』, 『국제신보』들이 전시언론의 중추역할을 맡은 셈이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중앙지들이 복간할 때까지 부산의 4개 일간지는 피난수도의 정보전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먼저, 『부산일보』에 실린 동시·동요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19) 『소년태양』은 미확인으로 전쟁기 아동문학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 조풍연, 『어린이신문』, 『現代新聞全書』(서울 학원사, 1959), 536~541; 조풍연, 『소년신문 제작의 證言들』, 『신문연구』 1969년 봄호, 26~27쪽 참조.

21) 전시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잠시 발간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동요나 동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결호를 감안하면 더 찾아볼 일이다.

시인	제목	발표지	연도	갈래	비고
윤석중	나무를 심자	부산일보	1951.4.5	동요	
윤재원	셋별	부산일보	1951.5.23	학생시	오빠를 싸움터로 내보내면서
이형기	이슬	부산일보	1951.9.14	동요	
최계락	童謠二題	부산일보	1952.5.7	동요	(1)길 (2)하라버지 등
박은중	어린이날	국제신보	1951.5.5	동요	
윤재원	고학생	국제신보	1951.6.8		부산사범 본2
한백민	한가위 달	국제신보	1951.9.15	동요	
한백민	병아리	국제신보	1951.9.23	동요	
박종	입학날	국제신보	1951.10.7	동요	박경중
박종	눈	국제신보	1952.2.1	동요	이북고향 집을 생각하면서
한정동	말과 달구지	국제신보	1952.2.17	동요	
한정동	어린이날	국제신보	1952.5.6	동요	
김장수	비가 온다	국제신보	1952.8.24	동요	
김장수	아저씨에게	국제신보	1952.9.12	동요	상이군인원호강조기간에제함
김장수	아버지의 위패앞에서	국제신보	1952.9.29	동시	
한정동	길	국제신보	1952.12.28	동요	
임인수	새해인사	국제신보	1953.1.1	동시	
한정동	차 파는 아이	국제신보	1953.2.8	동요	
한정동	아침 해변에서	국제신보	1953.2.15	동요	
한정동	내 거울	국제신보	1953.2.22	동요	
박경중	삼짇날	국제신보	1953.3.1	동요	
윤석중	숨이불	국제신보	1953.3.15	동요	
임인수	봄이 오는 길	국제신보	1953.3.22	동요	
윤석중	모자랴요	국제신보	1953.3.29	동요	
윤재원	봄하늘	국제신보	1953.4.6	동시	
한정동	소꿉놀이	국제신보	1953.4.18	동요	
박경중	꽃밭에 놀다	국제신보	1953.4.23	동요	
고원	봄날	국제신보	1953.4.26	동요	
윤석중	환합니다	국제신보	1953.5.10	동요	
윤재원	길	국제신보	1953.5.18	동시	
박은중	저녁때	국제신보	1953.5.26	동요	
김상옥	산울림	국제신보	1953.6.7	동요	
정진업	잔디	국제신보	1953.7.10	동시	

1946년 9월 10일 “不偏不黨 嚴正中立”이라는 사제를 내세우고 『부산일보』가 발간되었다. 부산 최초의 신문이자 『전남일보』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국문 부산일보』가 창간된 것이다.²²⁾

1945년 10월 9일 이후 경향 각지에서 수많은 신문이 쏟아져 나오고, 나라잃은 시기 때 폐간조치를 당했던 조선, 동아 등의 민간지도 복간되어 신문의 난립상이 벌어진다. 부산에서는 『衆報』로 알려진 『國文 釜日』이 『民主衆報』로 개제했고, 이어 『釜山情報』, 『人民解放報』, 『新韓日報』, 『大衆新聞』, 『自由民報』, 『釜山新聞』, 『産業新聞』, 『港都日報』가 창간되었다. 그리고 1947년 9월 1일 창간된 『산업신문(産業新聞)』이 1950년 8월 19일 제호를 『국제신보(國際新報)』로 고쳐서(지령 1039호) 발간되었다. 한국전쟁은 『부산일보』와 마찬가지로 이 신문의 급속한 확장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²³⁾

위 도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쟁기 『부산일보』에 수록된 동요·동시는 윤석중의 「나무를 심자」, 윤재원의 「셋별」, 이형기의 「이슬」, 최계락의 「童謠二題」 등 4편이다.

윤재원은 당시 부산사범 2학년생으로 『부산일보』 외에도 『국제신보』에 동시를 발표하고 있다. 다른 보도자료가 없는 관계로 인적 사항을 살필 수 없으나 당시 부산의 주요 일간지에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뛰어난 창작 활동을 한 학생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오빠/ 저—기 유난스레 빠—짝이는/ 별 하나 봐요/ 푸른 향물 흐르는 언덕위에서/ 풀밭에 맺는 이슬 보고 자란오빠/ 이제 자라난 젊은이의 용사로 서/ 정의의 창칼들로 나설 씩씩한 오빠/ 오빠 의로운마음 붙잡지 못할 때/ 저—셋별 타 들길을 걸어다니리/ 그리하여 오빠를 위한 새아침 청명의/ 가장 고유직한 노래꾼이 되오리/ 오빠/ 저—기 유난스레 빠—짝이는/ 별하나 봐요/ 악마떼를 박차고 선선히 나갈/ 용감한 오빠의 모습처럼/ 빛나는 별을… —「셋별」

‘학생시’로 분류된 「셋별」은 전시상황 아래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의 결의와 다짐이 살피진다. ‘오빠를 싸움터로 내보내면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대화체를

22) 『釜山日報五十年史』(부산일보사, 1996), 142-144쪽.

23) 『국제신문오십년사』(국제신문사, 1997), 132-141쪽.

적절하게 활용하여 시적 효과를 높였고, 구성면에서도 “오빠/ 저—기 유난스레
 빠~짝이는/ 별 하나 봐요”가 반복됨으로써 시적 주제를 세련되게 이끌어내고
 있다. 「셋별」에서처럼 1951년 6월 8일자 『국제신보』에 실린 「고학생」(“이슬비
 새벽을 적시울 무려/ “신문” “신문” 외치기에 목도 쉬었고/ 원품을 추근히 땀
 땀도 피곤도/ 씻을 마음없이……………/ 허리띠 졸라 매고 또 어딜가느냐”)에서
 윤재원은 당대 현실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1953년 4월 6일자에 발표하
 고 있는 「봄하늘」(“창가에 서신/ 선생님 어깨 넘어/ 아득한 저 하늘/ 어머니 마
 음씨 같은/ 따스로운 봄하늘…”)에서는 봄의 따스함과 어머니의 사랑을 동일시
 하고 있으며, 1953년 5월에 발표하고 있는 「길」(“산골길/ 오물 꼬불/ 외줄기 좁
 은 길// 꿈에서 본 길인듯/ 이애기로 들은듯// 그리운 그 길이기/ 혼자 자꾸 갑
 니다”)에서는 어린 학생으로서는 성숙한 시적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성
 시인의 작품으로 봐도 좋을 만큼 짜임새 있는 작품들이다.

달밤에 꽃송이에 맺힌 이슬들을 노래한 이형기의 동요 「이슬」(“꽃송이 도란
 도란 밝은 달밤에/ 잠안자고 속사기던 옛이야기가/ 고스란히 이슬되어 맺었습
 니다/ 꼬춥이에 이슬되어 맺었습니다”), 꼬불길을 묘사한 「길」(“어디서 오나/
 어디로 가나/…/ 솔바트새로 꼬불꼬불 산너머서 왔단다/ 솔바트새로 꼬불꼬불
 산넘으로 간단다”)과 아기가 올라타는 「하라버지 등」(“하라버지 등은/ 고개가
 되지오/ 아기가 살금 살금 기어 오르면/ 하라버지 등은/ 고개가 되지오”)을 묶
 은 최계락의 동요 「童謠二題」도 동심을 환기하는 아름다운 동요다. 경남·부산
 작가 작품은 아니지만, 식목일에 때맞춰 발표된 동요 「나무를 심자」는 오늘날
 에도 널리 불리는 기념노래가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쟁기 『국제신보』는 『부산일보』보다 훨씬 더 많은 동요와 동시를 수록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보이듯이 29편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더러 결호가 있어 작
 품수가 추가될 수 있겠다).

『부산일보』와는 달리 『국제신보』에 실린 동요나 동시들은 대부분 비경남·
 부산 출신의 작가들이다. 전란 중의 피난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한 결과이
 다.

영키지 않으련/? 저 잔디처럼…// 가을 서리에 시들어/ 겨울 북풍에 불
 태워도/ 봄이면/ 봄이면/ 돌아 나는/ 잔디 말이야// 그 위에/ 고운 꽃 피고/

열매 맺으면/ 아이 좋아/ 삼천리는 우리 꽃동산 -정진업, 『잔디』

김해 출신의 정진업은 시집 『金海平野』(남광문화사, 1953)로 지역사랑을 실천한 시인이다. 정진업은 연극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만큼 다재다능한 예술인이었고, 다방면에 관심을 보인 그가 동시를 창작했다는 사실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학생시’라는 갈래가 표시되어 있지만, 시적 경향으로 보았을 때 동시와 그리 구분되지는 않는다. 휴전협정을 직전에 두고 창작된 탓인지, 영감으로써 생명력을 얻는 잔디를 시적 소재로 선택한 시적 기질이 절묘하다. 잔디로 삼천리가 ‘꽃동산’이 되는 날에 대한 염원이 담긴 작품이다.

통영 출신인 김상옥의 동요 『산올림』(“산올림/ 산올림/ 낮잠 깨었다// 나무꾼이 소리하면/ 나뭇군 소리…/ 노장님이 엄불하면/ 노장님 흉내…”)은 순진한 아이와 스스럼없는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 여느 동요처럼 동심의 발랄함을 담고 있어 흥겹다. 그리고 평남 출신으로 월남한 비경남·부산 출신 문인이지만, 피난 와서 『국제신보』 기자로 일하면서 세 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한정동의 동요 세계도 눈에 띈다.

『국제신보』는 1953년 2월 들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아동문학을 다루고 있다.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소설과 동요·동시가 주된 내용이다. 무엇보다 전시상황 아래 꿈과 희망의 담론으로서 아동문학에 관심을 보인 『국제신보』의 혜안이 돋보인다.

살핀 『부산일보』와 『국제신보』의 동요·동시들은 전쟁기라는 격동적 상황을 동심으로 승화시키려는 간절한 바람의 결과물이다. 동심을 포화상태가 되도록 인용 또는 채용함으로써 전란 상황에 대응한 동요와 동시들이 소중하다. 전쟁기 신문에 나타난 동요·동시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동시보다 동요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동요는 아이의 노래요, 아이의 마음을 닮은 노래이다.²⁴⁾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동시에 움직

24) 음악사전에 따르면 동요는 아동의 생활감정, 심리 등을 아동문학 용어로서 음악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정형적인 노래이다. 아동가요를 줄여서 쓰는 말로서 문학부분과 음악부분의 두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동요란 아동을 위해 어른이 지은 가요와 아동 자신이 지어서 아동이 부르는 노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래동요와 아동 생활을 중심으로 정서교육을 위하여 어른이 쓰는 동요

이게 하는 매우 좋은 도구이다. 또한 인간 생활에 희로애락의 감정을 쉬 가해 줄 수 있어서 한층 더 생동감 넘치는 생활의식을 지속시켜 준다. 전쟁기 신문에서 동시보다 동요에 치중한 일은 율동적인 노래가 훨씬 호소력이 짙다는 사실에 주목한 문학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다음에, 자연과 동심을 동일시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이형기의 「이슬」, 한백민의 「병아리」, 한정동의 「말과 달구지」, 김장수의 「비가 온다」, 한정동의 「길」, 한정동의 「아침 해변에서」, 임인수의 「봄이 오는 길」, 박경종의 「꽃밭에 놀다」, 고원의 「봄날」, 윤석중의 「환합니다」, 박은종의 「저녁때」, 김상옥의 「산울림」, 정진엽의 「잔디」가 이에 속한다. 서론에서 살핀 대로 아이는 순진무구한 존재로서 영생적이며 영원하다. 이렇듯 절대적 진리를 안고 있는 아이는 자연과 닮았다. 이 자연 속에서(그리고 아이의 성정 속에서) 거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동족상잔이라는 처참한 현실도 자연의 이치 속에 들어서면 멀거나 가깝거나 희망을 상징한다. 이 자연의 인간 상태인 동심은 이렇듯 전쟁기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구체적인 희망담론인 것이다.

다음에, 기념일을 노래한 작품들을 꼽을 수 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임인수의 「새해인사」), 새봄맞이하는 삼월 삼짇날을 노래한 작품(박경종의 「삼짇날」), 학교에 입학하는 설렘을 노래한 작품(박중²⁵⁾의 「입학날」), 식목일 생명의 싱그러움을 노래한 작품(윤석중의 「나무를 심자」), 어린이에게 최고의 날인 어린이날을 찬양한 작품(박은종의 「어린이날」, 한정동의 「어린이날」), 한가위 풍성함을 노래한 작품(한백민의 「한가위 달」) 등 특별한 날 기대감으로 대하는 동심들이 특별하다. 일종의 의식요인 이들 동요들은 기념일의 의의를 높이고, 짧은 가사 속에 응축된 의미나 사실을 음악적 모체를 통하여 재인식시키며 그 의의를 오래 간직하게 한다.

다음으로, 현실 문제 천착한 동시와 동요들이다. 윤재원의 「새별」, 윤재원의 「고학생」, 박종의 「눈」, 김장수의 「아저씨에게」, 김장수의 「아버지 위패앞에서」, 한정동의 「차파는 아이」에서 살필 수 있듯이 전쟁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동시보다는 율동적이고 민요적이다. 박신준, 『음악대사전』(세광음악출판사, 1982), 289쪽; 류덕희·고성휘, 『한국동요발달사』(한성음악출판사, 1996), 8-18쪽.

25) 박중으로 발표된 「입학날」과 「눈」은 박경종의 작품이다.

수밖에 없는 동심이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천진난만성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윤석중의 『숨이불』과 윤석중의 『모자라요』가 이에 속한다. 동요나 동시의 가장 근원인 아이의 천진난만성이 비교적 적게 창작된 것은 전세기라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원론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컸던 탓이다.

V. 마무리

이 글은 1950년대 전세기 경남·부산지역 동시들의 시적 의미와 의의를 살피고자 마련되었다. 시집으로 김상옥의 『석류꽃』과 서덕출의 『봄편지』를 보았고, 아동잡지로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 『파랑새』, 『꽃수레』, 『중학시대』를 살폈으며, 신문은 『부산일보』와 『국제신보』를 대상으로 삼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세상과 세상 사이를 솔기 없이 이어주는 일은 동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세기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전세기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 놓인 동심은 선과 악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갈구한 듯 보인다. 그러나 그 갈등과 갈구는 동시라는 각본 속에 이미 내장되어 있었다. 전세기라는 절망기 속의 동심을 훈육적으로 각색하지 않은 채 작품 속에 그대로 읊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시인들은 동심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는 유지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감수했다. 그 자체로도 훌륭한 스토리보드였던 동심을 충실하게 담으려는 고집을 우직스럽게 밀어붙였고, 동심의 대사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이미지와 이미지, 순간과 순간으로 과감하게 뛰어넘는 점프킥으로 가득한 동시는 다른 갈래에 견줄 수 없는 생명을 얻었다. 전세기 동시의 쾌거이다.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특징 가운데 특히 나라잃은 시기에 두드러졌던 현실주의적 동시관과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전세기라는 시련기에 배태된 동시의 진솔하고도 역사적인 모습은 그 의미와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시동요(戰時童謠)’도 주목할 만하다. 전의

를 복돋우고 승전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 전시동요이다.²⁶⁾ ‘해군어린이음악대’를 중심으로 ‘통일 행진곡’, ‘승리의 노래’, ‘애국의 노래’, ‘인권의 노래’, ‘간호 언니의 노래’, ‘전투기 노래’, ‘위문 편지’, ‘산 넘어 산’, ‘대한의 아들’, ‘어린이 행진곡’, ‘우리의 소원’, ‘꽃밭에서’, ‘과꽃’, 등 아직까지도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들이 전시동요로 불리워졌다.²⁷⁾

국난 극복기에 이른바 좋은 작품들은 등장인물이 선과 악의 사이에서 도덕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항상 보여 주어야 하는 강박중에 시달린다. 곧 절망 속에서 도덕과 윤리의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핀 바 동심은 더 이상 전쟁기를 극복할 영웅심은 아니었고, 선과 악의 경계에서 구원을 찾아 헤매는 차라리 슬픈 영혼이었다. 행복한 과거와 불행한 현재의 단절을 경험하는 체험들이 바로 전쟁기 동요나 동시인 셈이다. 그 속에서 동심의 초상을 발견했고, 자연의 속성을 지닌 순진무구한 동심만이 난국을 타개해 줄 것이라는 의욕으로 동심을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체험하는 양태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희망의 원리로서 전쟁기 동요나 동시가 채택되도록 유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대부분의 문학에서는 독자가 감시자가 된다. 그러나 동요나 동시에서는 감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한 독자를 상정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주종관계가 아예 파기된, 동심을 바탕으로 한 사람살이 관계는 한번 마련된 후 멈출 줄 모르는 이야기를 타고 넘으며 인간 사이의 근본적 권력관계를 해부·해체해내는 데까지 도달한다.

수많은 시인들이 전쟁기 동시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의 불가능성과 그 소유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소유는 우리가 전쟁 따위로 갈등을 겪는 한 그 관계 안에 존재할 것이고, 이것은 영속적이면서도 우주적인 주제를 만들게 한다는 사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무한성이고, 아이들은 자연이거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도저한 상황들인 셈이다. 동시나 동요의 담론은 매우 가까운 미래를 기대한다. 전쟁기라는 정서적인 박탈감을 동시나 동요는 이렇게 상상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26) 한용희, 『창작동요 80년』(한국음악교육연구회, 2004), 115-120쪽.

27) 김주현, 「國民歌謠와 意識歌謠가 民族의 意識에 끼친 影響에 관한 考察」, 춘천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2 참조.

주제어 : 전쟁기 경남·부산지역 동시, 김상옥, 서덕출, 전쟁기 아동잡지, 전쟁기 신문, 서덕출,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 『파랑새』, 『꽃수레』, 『중학시대』 『釜山日報』, 『國制新報』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 『파랑새』, 『꽃수레』, 『중학시대』, 『釜山日報』, 『國制新報』
- 김영일, 『소년 기마대』, 1951.
- 서덕출, 『봄편지』, 자유민보사, 1951.
- 홍은순, 『戰時 노래 모음』,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1951.
- 김상옥, 『석류꽃』, 현대사, 1952.
- 김장수, 『파랑새』, 삼성출판사, 1952.
- 이종택, 『새싹의 노래』, 1952.
- 윤석중, 『노래 동산』, 학문사, 1952.

2. 낱글

- 권정생, 『아동문학이 외면했던 고난 속의 동심』, 『우리어린이문학』, 한국어린이 문학협의회 엮음, 지식산업사, 1993.
- 김기완, 『전쟁과 문학』, 『문예』 12호, 1950년 12월호.
- 김상옥, 『어린이문학의 특성과 어린이문학의 생활화』, 『문학교육학』 8,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 김요섭 외, 『童謠와 詩의 展望』, 『아동문학사상』 7, 보진제, 1972.
- 김요섭, 『어두운 세계를 위한 兒童文學』, 『동광』 6권 4호, 한국복지재단, 1962.
- 김주현, 『國民歌謠와 意識歌謠가 民族의 意識에 끼친 影響에 관한 考察』, 춘천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2.
- 문선영, 『1950년대 전쟁기 피난문단과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매체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7집, 2004.8.
- 박춘희, 『兒童文學장르論』,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상철, 『신문은 한국전을 어떻게 보도했는가』, 『동서언론』 제3집, 1999.12.
- 이영호, 『분단국가에서의 아동문학』, 『한국아동문학연구』 6, 한국아동문학학회, 1996.
- 이원수, 『아동문학의 방향』, 『아동문학』 6, 배영사, 1963.
- 이원수, 『戰時中の 『소년세계』와 文學運動』, 『현대문학』 1965년 8월호.

- 임헌영, 「6·25와 분단에 따른 실향민」, 『우리문학』 제1호, 몰레, 1986.12.
- 임헌영, 「전쟁 속의 인간상」, 『월간문학』 1969년 10월호.
- 전해사, 「전시문학과 작가의식」,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 제해만, 「韓國現代 童謠·童詩의 史的 考察-光復 以後 60年代까지」, 사계이재
철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韓國現代兒童文學 作家作品論』, 집
문당, 1997.
- 조은숙, 「1910년 아동 신문 『붉은 저고리』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8호
2003.10.
- 조종연, 「소년신문 제작의 證言들」, 『신문연구』 1969년 봄호.
- 조종연, 「어린이신문」, 『現代新聞全書』, 서울 학원사, 1959.
- 최남선, 「한국문단의 초창기를 말함」, 『현대문학』 1955년 1월호.
- Klaus Doderer, 「아동문학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한국아동문학연구』
7, 한국아동문학학회, 1997.

3. 날채

- 『국제신문오십년사』, 국제신문사, 1997.
- 『釜山日報五十年史』, 부산일보사, 1996.
- 김용희, 『동심의 숲에서 길찾기』, 청동거울, 1999.
- 류덕희·고성희, 『한국동요발달사』, 한성음악출판사, 1996.
- 박신준,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2.
- 방정환, 『어린이를 위한 마음』/소과아동문학전집 별권, 동양출판사, 1966.
- 사계이재철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韓國現代兒童文學 作家作品論』,
집문당, 1997.
- 사전편찬위원회 엮음, 『韓國兒童文學家人名辭典』, 보리밭, 1986.
- 스티븐 카터 & 줄리아 스콜(승영조 옮김), 『사랑을 못하는 남자』, 돌출새김, 2005.
-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 이재철, 『韓國現代兒童文學史』, 일지사, 1978.
- 한용희, 『창작동요 80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 2004.
- John Rowe Townsend(강무홍 옮김), 『어린이 책의 역사』 I, 시공사, 1996.
- Paul Hazard(석용원 옮김), 『책·어린이·어른』, 새문사, 1980.

<Abstract>

A Study on the Refuge Literary Circles of Wartime in 1950's and the Children's Poetry Gyeongnam-Busan District

Moon, Sun-Young

The Korean literature of wartime in 1950's had the remarkably dynamic featur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efuge literary circles. Especially, the continuous literary practice couldn't be copied because of the frequent coming and going of the literary people. Like that, the experience of media publication on children's literature which was established in Gyeongnam · Busan from the formation of refuge literary circles was unique. Actually, it couldn't be to overstate that the Korean literature of wartime was the literature in Gyeongnam-Busan. This study seeks to survey the meaning of children's literature in Gyeongnam-Busan through defining the contemporar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literature, focusing on *Youth World*, *Children's Digest*, and *Bluebird* which were published in 1950s.

Youth World was the general children's magazine which was supervised by Lee, Weon-Su and published in refuge district, Daegu, July, 1952. This magazine had the feature of pure literary art which advocated the children's temperature. But this had the popularity by preparing the communicative structure in culture and living section.

The fact that *Youth World* was published by the supervision of Lee, Weon-Su calls for the attention from two aspects. Above all, we can presume how strong his literary power affected the media of children's literature from the fact that he was the literary person from Gyeongnam

district and the external pen club who were acquainted with him were participated. And the fact that he chose the district, Daegu, where the right-wing children's literature already bloomed guaranteed that he paid off the original sin of the past and secured his own literary lo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angelic children's mind which he showed in his children's literature pacified the left-wing features which was his personality before the Korean War and contributed to the security of his literary location as well.

Children's Digest was the general children's magazine which imitated *Reader's Digest* of Korean version which attracted the public, and this was published first in Busan, 1952 and discontinued in about 1 year. The fact that Kang, So-Cheon superintended this media publication meant that this had the dominant feature of Christian view of the world. And the external literary club participated the publication of this magazine. Kang, So-Cheon intended to publish the magazine like *Children's Life*, but his intent wasn't fully realized, the reasons of which was caused from the fact that this magazine was stopped at 14th number and the social situation that this was published under the war was great burden. affected 14. But afterward, this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Kyeongnam·Busan.

Bluebird was the general children's magazine which was publish September, 1952. This magazine which was supervised by Kim, Yong-Ho was published under the educational intention on the basis of edification and current topics. The value of *Bluebird*, above all, was that this independently practiced the role of children's literature within the refuge literary circles through the hands of district literary people, such as Kim, Yong-Ho and Son, Dong-In. Of course, *Bluebird* didn't fully recover the humble loc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refuge literary circles, but operated as the found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Kyeongnam·Busan where the literary people like Choe, Gye-Rak fully bloomed the children's literature afterward.

Especially, *Bluebird* had the new meaning of the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at this magazine was the kind of the media movement of children's literature as the confrontation way of district literature in the wartime.

The marked reas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wartime is that the literary people published the media, being interested in 'children' who would lead the history of the future in spite of the historically difficult period like war. When we consider that the readers of children's literature are children, or adults who cherish the children's heart, the children's literature was very important literary practice which dissolved the confusion of the Korean War and furthermore predicted the national prospect

Key Words : Wartime in 1950's and the Children's Poetry Gyeongnam-Busan District, Kim, Sang-Ok, Seo, Deok-Chul, Wartime in 1950's and the Children's Media, Wartime in the 1950's and the newspaper, *Youth World*, *Children's Digest*, *Parangsae*, *Kotsurae*, *Junghaksidae*, *Busan-ilbo*, *Kukje-sinbo*